

---

第93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7年3月18日(火) 午後3時 開式

---

第93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式
  1. 國旗에對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및戰歿護國勇士에對한목념
  1. 開會辭
  1. 閉式
- (司會 議事擔當官 金大根)
- 

(15時 30分 開式)

○議事擔當官 金大根; 지금부터 第93回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國旗에 대한 敬禮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國旗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對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를 齊唱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齊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木념을 하시겠습니다.

(일동 木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文一權 議長님께서 開會辭를 하시겠습니다.

○議長 文一權; 존경하는 趙淳 市長과 劉仁鍾 教育監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천백만 수도 서울의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第93回 臨時會 開會辭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3月 6日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뒤늦게나마 우리 議會의 同僚議員으로 동참하는 영광을 차지한 세 분의 議員께 우리 議會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 말씀을 드리며, 세 議員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실감나는 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외채 1,000억달러, 2월까지의 무역적자 55억달러, 국민 1인당 2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살아가는 시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한시라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행정, 서민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여 시민의 자발적 협조와 노력에 바탕을 둔 시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데 다같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會期에 우리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과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와 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 災害對策特別委員會 등 6개의 特別委員會를 구성 결의하였으며, 자라나는 2세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학교급식시설과 도서관 相助會 운영에 관한 行政事務調查의 件도 의결하였습니다. 不撤晝夜 노력하시는 議員께서는 짧은 시간을 쪼개어 熱과 誠을 다하여 特別委員會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執行部는 물론이고 여러 議員들의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議員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議員研究室과 의회자료실을 각각 개관하였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은 시설이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구하는 자세와 많은 시민들과 한발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조그마한 봉사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第93回 臨時會는 오는 4月 1日까지 15日間の 일정으로 開會되는 회의지만,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질문으로 민의의 소재를 파악하고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50여건의 계류된 안건 처리에도 충분한 법률검토와 효율적인 심의로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왕성한 활동이 전개될 시기입니다. 市議會나 執行部에서는 시민들의 사고와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하여 꾸준히 시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려는 열린자세를 갖추으로써 진정한 地方自治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第93回 臨時會 開會式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開會辭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事擔當官 金大根; 이상으로 제9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時 37分 閉式)